〈첨부 1〉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

URGENT APPEAL TO THE UN SPECIAL PROCEDURES

-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 Special Rapporteur on the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including its causes and consequences
- Special Rapporteur on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October 30, 2019

RE: The Right to Reparation of the Victims who were Subject to Forced Labor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State-owned Enterprises during World War II

The authors:[1]

- ***Mr. Chunshik Lee***

- ***Ms. Keumdeok Yang***

Parties concerned

- The Government of Japan
- Nippon Steel Corporation, Mitsubishi Heavy Industries, and others

Representation:[2]

-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Contact: Mr. Kinam Kim, *esq.* Counsel for the authors, asparte1997@gmail.com

[1] Annex 1. Identification Cards
[2] Annex 2. Power of Attorneys

…

IV. REMEDIES SOUGHT

55. In light of the above, the authors demand the **Japanese government** to acknowledge the truth about what happened to the authors and other victims, issue official apology, cooperate with and support a truth-seeking process, provide relevant documents and information possessed by the governments at all levels and the companies of Japan, and encourage the Japanese companies to compensate the authors.

56. The authors also demand the **Japanese companies** to acknowledge the truth, issue official apology, begin a dialogue in good faith with the authors and other victims, and provide the prompt compensation.

57. The authors would like to respectively request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to devise diplomatic measures regarding long-deterred right to reparation of the victims of forced labor. The authors also recommend that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other victims of forced labor other than those who obtained the court ruling including the authors also receive reparation. The authors request that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boost a truth-seeking process by making the relevant documents and records in its possession available to researchers. Finally, the authors request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to start commemorative projects for the draftees or victims of forced labor during the World War II.

58. The authors would like to respectively request UN Special Procedures to make joint communications to the governments and the companies concerned, and to make a joint press release that (a) expresses grave concern about continuing violation of the parties concerned against victim survivors, and that (b) urges immediate measures to be taken, based on the principle of victim-centered approach. The authors would also like to respectively request Special Procedures to actively engage in the international arena including UN Human Rights Council to raise public awareness. Time is of essence since the authors and other victims are old and many already passed away including one who passed away on October 26, 2019.

〈첨부2〉 일제강제동원 강제노동 국제사회 고발, 100만 서명운동

국제사회도 '강제노동'의 심각성 인지

-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이,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한바 있습니다. 지난 1999년 민주노총, 한국노총,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호소와 관련자료>를 ILO노동자위원회에 제출하고 일제치하의 강제동원 강제노동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렸고, 당시 ILO전문가위원회에서는 일본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한 책임성을 받아들이고 희생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를 강구할것이라고 믿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ILO총회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도 여러 번 강제노동금지위반이라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단 한 번도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 특히 그동안, 일본정부와 기업의 입장은 달라진바 없습니다. 달라지기는 커녕,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공동행동, 민주노총 전 조합원 및 전체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범국민서명운동, 최소 100만인 동참할 것

- 이에 노동자들은 물론, 시민사회 전체가 나서 국제사회에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제동원 공동행동 소속 단체는 물론, 민주노총 전 조합원(100만)이 참여할 것이고, 나아가 뜻있는 시민들 모두와 함께 알려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와 기업의 인권침해, 강제동원 실태와 역사 고발하는 계기가 될 것

- 오늘을 시작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해 내년 6월 ILO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로 된 서명은 물론, 다른 나라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국제캠페인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 3월 1일에는 3.1 101주년을 맞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다른나라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국제토론회, 피해자 증언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의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인 강제노동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 해당 기업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 기업들의 역사와 과거에 대해 다른나라 시민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첨부3〉 추가제소 현황

추가제소 현황

2019. 10.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강제동원사건 공동대리인단 공동간사 최용근

□ 대법원의 2018. 10. 재상고심 판결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 광주전남지부)은 민족문제연구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시민사회와 함께 다수의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상담하면서 추가 소송을 준비하여 왔음

□ 위 대법원의 재상고심 판결 이후, 추가소송을 제기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관할	피해자 기준 인원수	사건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8명	21건
광주지방법원	54명	9건

□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한 주요 피고 기업은 다음과 같음

- 일본제철 주식회사	- 후루카와기계금속 주식회사
- 주식회사 후지코시	- 스미세키홀딩스 주식회사
- JX금속 주식회사	- 미쓰비시 머티리얼 주식회사 (Mitsubishi Materials Corporation)
-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 히타치 조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쿠마가이 구미	- 일본코크스공업 주식회사
- 니시마츠건설 주식회사	

□ 현재에도 대리인단에 의한 관련 기록 검토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추후 소송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안녕하세요.

인천도림초등학교 교사 박정혜입니다.

우리학교 5학년 학생들이 2학기를 맞이하여 사회 역사 단원을 학습하게 되었고 한일관계를 역사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춘식 할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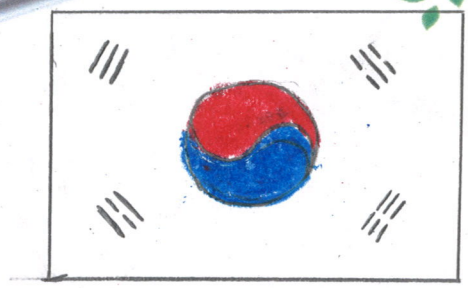
인터뷰를 하시면서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주제로 토의를 하였고 학생들이 직접 이춘식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을 모아 편지를 보내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학생들의 마음을 읽어 주시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5학년 1반 교사 박정혜 올림



일본의 강제 징용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이춘식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수업시간에 할아버지께서 인터뷰를 하신 모습을 보고 편지를 쓰게된 초등학교 5학년 이예주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힘들어졌다고 하셨는데 할아버지 잘못 하나도 없으세요! 일본이 잘못한거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일본이 강제로 일하게 하셔서 어쩔수없이 하신거잖아요. 그러니 힘을 내셔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만 하면되요! 제가 할아버지께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반에 할아버지를 위해 편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할아버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일본한테 1억원을 받으세요!!

추신: "이춘식 할아버지"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인천도림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5학년 1반 이예주 올림

TO. 이출신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저는 정재욱이 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뉴스에서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했지만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강제징용을 한 일본이 잘못이에요 나라와 나라끼리 사과를 한것이지 나라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지요 그러니 계속 우기고 있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것은 할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매운동을 하고요 또 우리도 일본 에게 계속 지기 만할수없고요 그러니 울지 마시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건강하시고 기운 내세요 알겠죠? 힘내세요

날짜 :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인천 도림초등학교 5학년 1반 17번 정재욱 올림

이춘석 할아버지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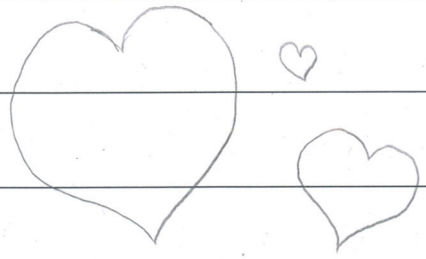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도림초 5-1반 박주은이에요.
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강제징용 사건이 절대 할아버지의 탓이 아니라는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할아버지를 강제로 끌고 가 노동을 시킨건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가슴아프고 화가나요. 그런데 그걸 전부 할아버지 탓으로 돌리시는건 더 슬퍼요. 그 어린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간 것만으로도 슬프실 텐데 일본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그 책임을 지시는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 할아버지는 그저 일본에서 주는 피해보상 1억만 받으시고 행복하셔야 되요! 그동안 큰 고난을 겪으신 만큼 충분히 행복하실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 할아버지, 이젠 더이상 자책하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2019년 8월 30일
박주은 올림

-이춘식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도림초등학교 5학년 4반 전유연 입니다. 저는 요즘 학교 사회수업시간과 국어시간에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았을 때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알게되어 편지를 쓰게되었습니다. 저는 수업시간에 할아버지께서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고생하신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좋지않았습니다. 지금 일본이 좋지않은 행동을 하는것이 할아버지께서 잘못하셔서 그런것이 아니니 너무 미안해하시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옛날에 식민지배를 하고 강제로 일을 시킨 것을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본에게 피해를 받은 분들께서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나라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일본이 잘못한 일을 정확히 말할수 있게 노력 할 것 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ㅅ)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전유연 올림